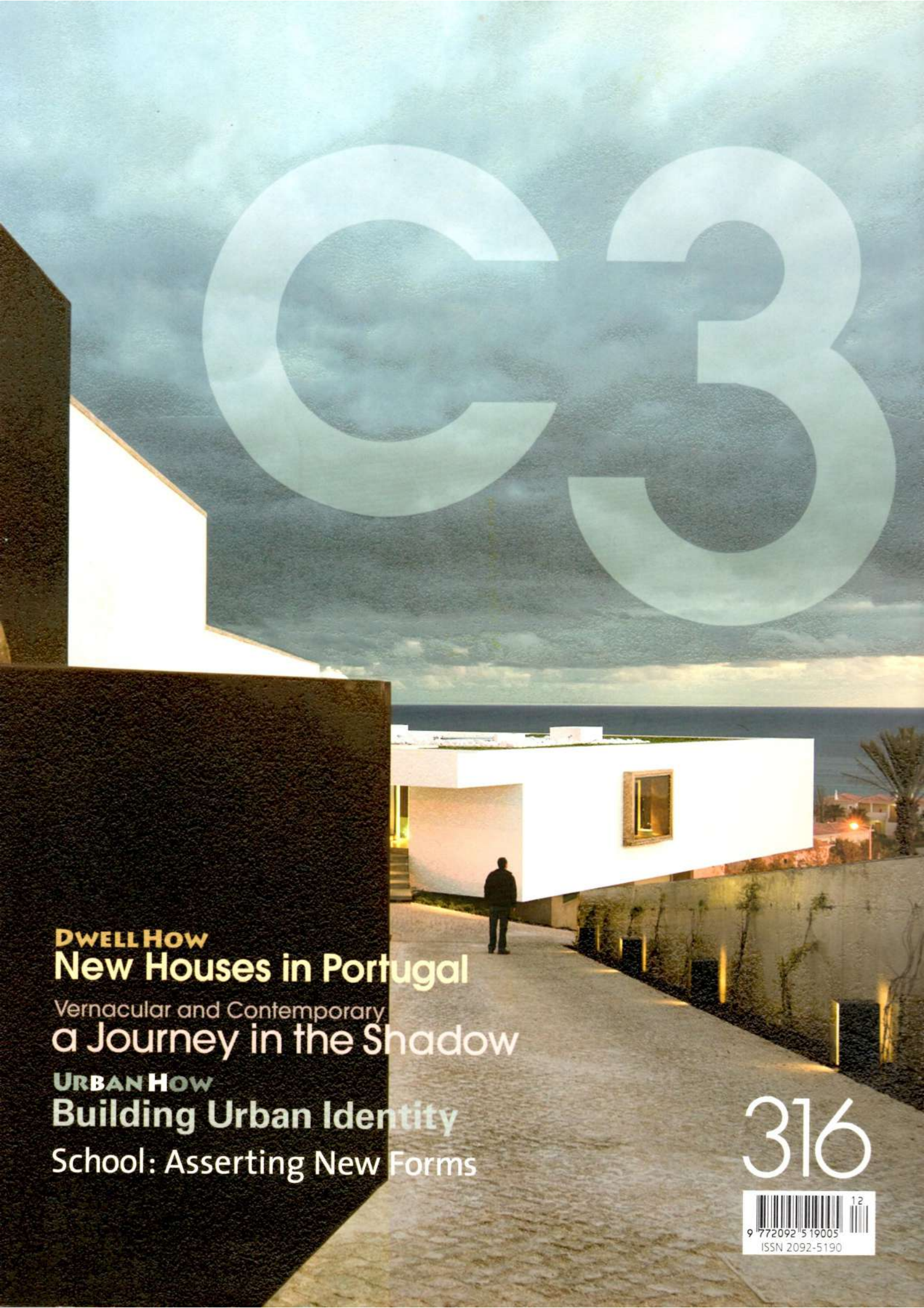




C3

DWELL HOW

New Houses in Portugal

Vernacular and Contemporary

a Journey in the Shadow

URBAN HOW

Building Urban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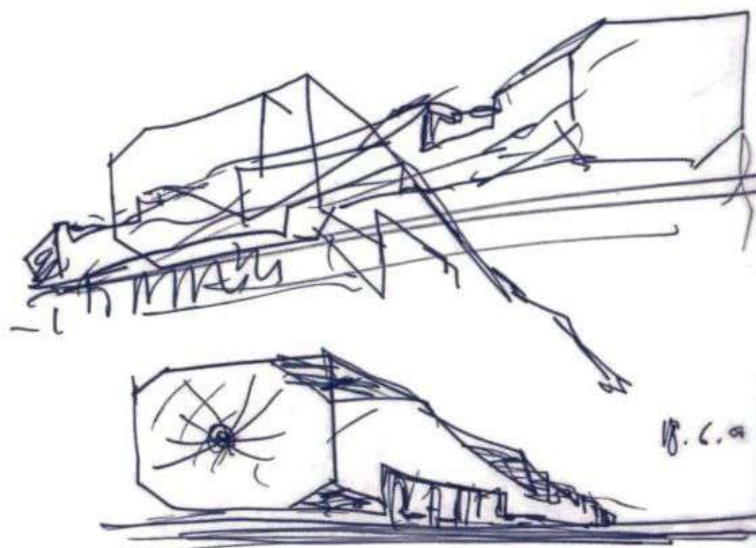
School: Asserting New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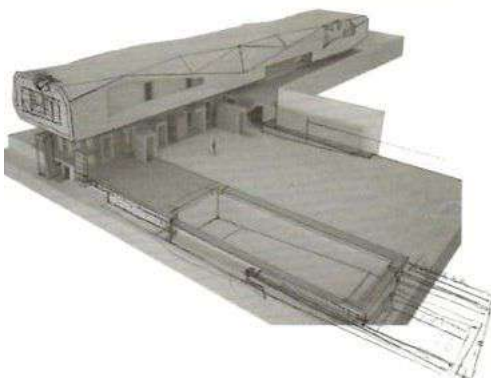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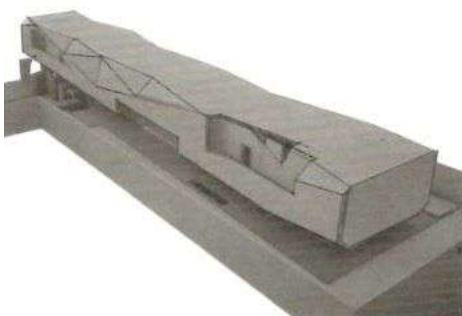
316



House in Porto

Álvaro Leite Siza Vieira





In order to produce architecture, one needs a client and a sponsor. When I realized at a certain point in my career that I would need to be both to continue my path, I wasted no time. A lot of courage was needed. I juggled objectives, interests, and goals; pursued an ideal and realized a dream. In this work, I needed to be also a supervisor, coordinator and works director, in charge in an organization.

I started this work in 2004 and finished it in early 2005. The work began in February 2006 and was concluded in July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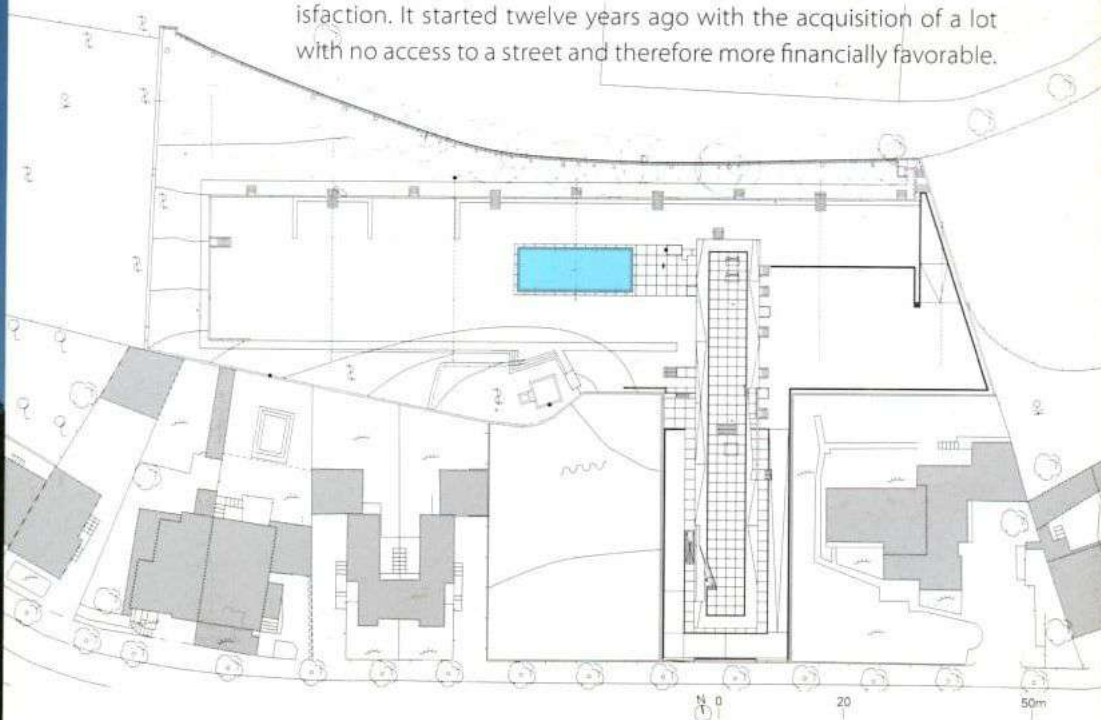
The project of the home-studio itself is the first where striking figures are present in its atmosphere, exalting works and personalities drawn from history versus sensibility, individually recreating realities without a previously defined purpose. They are present as a means to entice beliefs beyond what is intended, the sublimation underlying the authentic communication of the creative process.

When the modern becomes old, the distant past emerges in its most eloquent expression. The assertion of a new Romanticism, of a Classic Renaissance coming straight from its origins, with the burden of the former being no less important.

The house itself is an imaginary laboratory, representing the pulses, ideas, tensions and forces behind it. The history and the emotions it encompasses, the symbolism which it represents. The figures and human relations.

In this project, born from the free drawing of a harlequin's figure -laughing at problems, conflicts, mismatches, communication difficulties, among other tragedies involved in this activity-which it transforms into a geometric abstraction, where there is no room for glass frames, testing the assertion of a new classicism. Spaces for transition, porticos, the lighting, chandeliers, doorknobs, doors, handrails, paintings and furniture were designed by yours truly, but there are also others from the 19th century (timeless pieces) which are from the family and blend in so well, among other elements, complementing the creation of environments which exalt Mozart, Leonardo da Vinci, Miguel Ângelo, and other such outstanding figures and art, unrestrained by the atmosphere of a strictly architectonic vision.

The realization of this ideal was made possible by an obstinate and stubborn personality along with a no less expressive dissatisfaction. It started twelve years ago with the acquisition of a lot with no access to a street and therefore more financially favorable.



In the following six years, I sought a connection that could make it all possible. I was fortunate to have a cousin from my mother's side as the real estate agent for a vacant lot which he sold me. To close the deal, I had to purchase another adjoining lot which I resold with the personal project approved. In this way, I made money by having invested all of it in this 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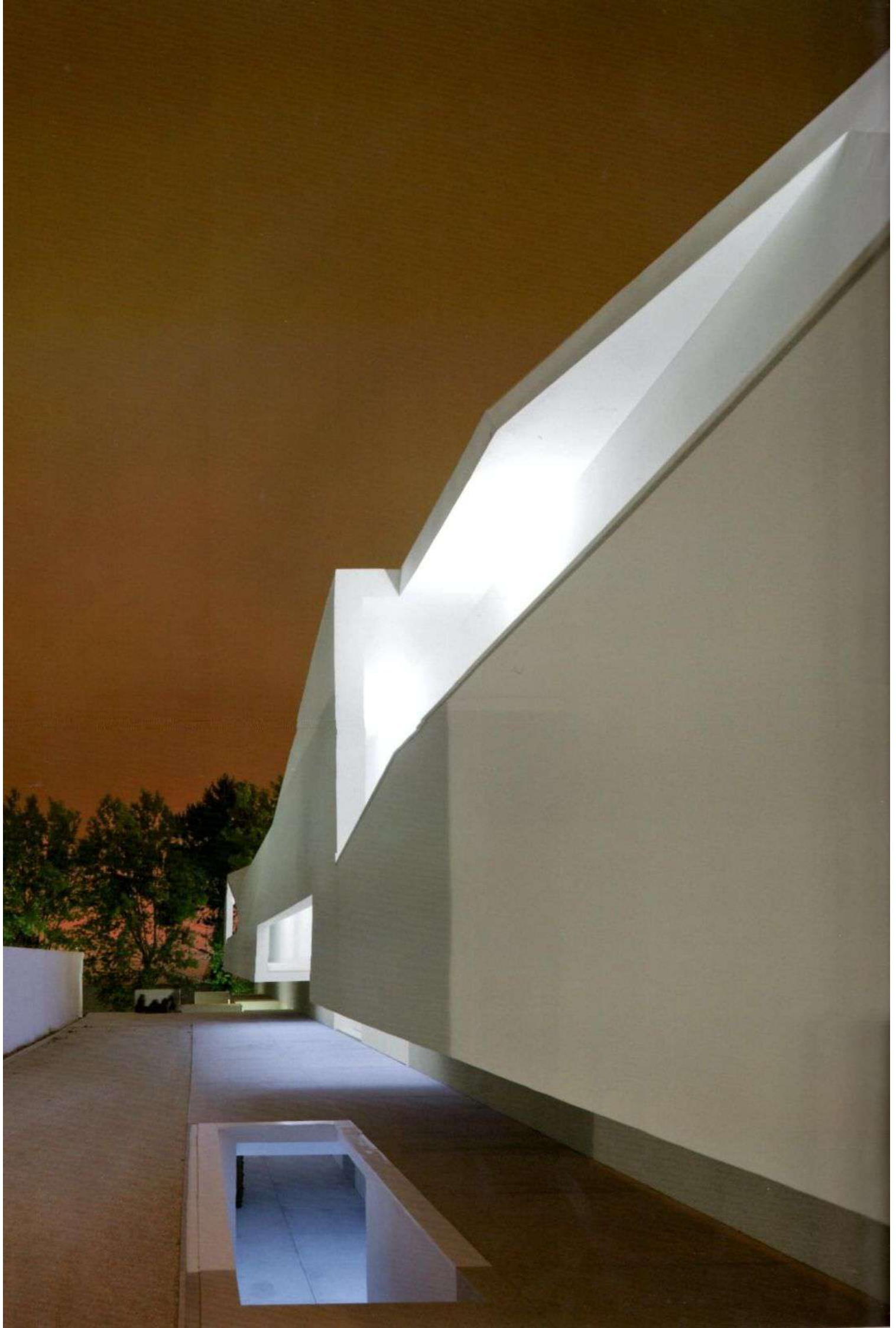
During the necessary operation of land consolidation, the project came up as a result of a discourse of paradoxical intentions.

Home/Studio; Interior Space/Exterior Space; Social Space/Cultural Space; Private/Public; Leisure/Work.

Its volumes are organized by horizontal and vertical sections. A program was set up for a studio near the street, garages and service areas functioning as a hinge, and finally the house itself in relation to the garden. An underground floor conforms to the foundations, another granite ground floor suitable for public and social areas, and also the floor above. If on one hand the ground floor is expressed from the inside out, from the intimacy to the outside in an explosive manifestation creating the needed openings, the transition porticos and the respective skylights; on the other hand, the top floor implodes. The aggression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symbolically creates tensions, pressures which are recognized from outside to the inside, reducing its volumetry giving birth to a figurative image. Through a rigorous geometric abstraction to make the construction system possible, set up by diamond shapes associated in different angles, which provide greater three-dimensionality, I found the proportion intended, the desired horizontality, the orientation defined previously, the objectivity and determined direction. The symbolism of the image which sublimates the oppression of a system. Álvaro Leite Siza Vieira









포르투의 주택

건축에는 고객과 후원인이 필요하다. 언젠가 이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전혀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상을 추구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흥미, 목표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했다. 이번 작업에서 나는 조직의 관리자, 진행자, 그리고 감독관 역할을 동시에 해냈다.

나는 2004년부터 2005년 초반까지 설계에 참여했고, 시공은 2006년 2월에 시작해 2010년 7월에 마무리 되었다.

이 주택 겸 작업실 프로젝트는 역사와 감성 그리고 재창조한 현실을 개성 있는 작품으로 승화시켜, 공간 내부에 그 개성을 그대로 담아낸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건물은 단순히 의도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창조 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새로운 것이 시간이 지나 오래될수록 그 동안의 역사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새로운 낭만주의가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에도 그 근원인 클래식 르네상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집은 생동감과 아이디어, 긴장감 그리고 배후에 감춰진 힘을 대변하는 가상의 실험실이기도 하다. 여기에 포함된 역사와 감성은 인간 관계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번 작업에 얹힌 모든 문제점, 갈등, 부조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볍게 웃으며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드로잉 하는 과정에서 받은 영감을 추상적인 기하학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새로운 고전주의를 실현하려는 일환으로 디자인에 창틀을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주랑, 조명, 상들리에, 문고리, 문, 난간, 예술 작품, 가구 등을 위한 공간을 설계했다. 모차르트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구엘 안젤로, 또는 다른 위대한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조할 때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제한된 건축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나의 고집 세고 완강한 성격 덕분에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했다. 12년 전부터 주요 도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보다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부지를 찾아다녔다. 이후 6년간 꿈을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매개체를 찾아다녔다. 운 좋게도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아중사촌에게 적절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인근의 부지를 개인적 건축으로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구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프로젝트는 불가피한 부지 합병을 하던 중 떠오른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주택 겸 스튜디오인 이 건물은 내부공간이 외부공간이 되고 사회적 공간이 문화적 공간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공간도 되며 취미 생활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스튜디오가 길가에 자리하고, 차고와 서비스 공간이 짐꾼다리 같은 역할을 하며, 그 뒤로 집과 정원을 배치 하였다.

지하층은 기초 공사를 한 후 그 형태를 토대로 만들었으며, 바닥을 화강암으로 마감한 1층과 2층은 사람들이 만나는 공적 공간을 이루고 있다. 1층은 안쪽부터 바깥 쪽을 향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부와의 친밀감을 위해 밖으로 난 구멍이나, 주랑, 채광창을 배치해 바깥 세상을 향해 폭발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반면, 최상층은 확 트여 있다. 외부가 침범하고 들어온 공간은 긴장감과 부담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하는 공간의 부피를 줄이려 했고, 이러한 시도 중에 건물의 기하학적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 추상적인 기하학을 현실에서 재현하기 위하여 각기 각도가 다른 다이아몬드 형상들을 연결해 3차원으로 엮어 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의도한 비율과 그토록 바라던 수평선, 이상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확고한 방향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절제된 건축의 숭고함을 상징한다. 알바로 리베 시자 비에라

